

‘배아 복제와-윤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줄기세포를 만든 황우석 교수(서울대 수의학)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의 윤회사상이 이번 연구의 철학적 배경”이라고 밝혔다. 또 문신용 교수(서울대병원)도 미국 국가과학진흥회에서 “복제는 생명의

재생(윤화)에 대한 또 다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것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복제와 윤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두 교수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불교 학자와 관련 과학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복제는 새로운 ‘업’ ... 허용 기준이 문제”

●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우리가 DNA나 체세포에 대해 잘 모르듯이 일반인들이나 과학자들은 윤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우리가 DNA나 체세포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보다도 윤회를 모를 수 있고 그것은 당연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한다는 의미 정도도 윤회를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윤회의 핵심은 업이다. 업이 있으므로 해서 윤회하는 것이고 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윤회는 성립할 수 없다. 복제가 윤회냐의 문제는 업이 작용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데, 업은 행위이고 윤리적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물질(DNA)로 본다. 물질적·기술적 문제만 들어가지 윤리적 문제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과학자들은 윤리적 문제를 취급 안한다. 과학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데 윤리적 문제인 업이 왜 들어가겠는가. 다만 2차적인 문제로 사회에서 인정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죽 업에 의해 다음 생이 이어진다는 큰 틀에서 본다면 복제 역시 물질적 조작에 의해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과 윤회의 문제, 수행의 문제가 다 걸려 있다. 가령 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짓고 받는 것인데, 3독을 없애는 쪽으로 DNA를 바꾼다고 하자. 성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한 수행의 기간은 훨씬 짧아지거나 효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의 의지가

두 교수가 복제를 윤회라고 말한 것도 짐작컨대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과학은 순환론보다는 진화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이 세포분열과 상호결합을 통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제는 윤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순환론적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순환론이란 진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를 윤회한다고 말할 수 없다.

결합한 상태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볼 때 그건 새발의 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불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한 동기에서 출발한 그 행위도 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

호진 스님(불교윤리)

업에 의해 다음 생 이어져 복제는 물질-업은 윤리 문제

김용정 박사(과학철학)

현대 과학, 진화론에서 접근 윤회사상은 순환론에 바탕



김성철 교수(불교철학)

수정란 파괴 생명 죽이는 일 동기 선하면 행위도 좋



우희종 교수(생명공학)

의미부여일뿐 연관 없어 윤회, 모든 것의 관계로 봐야

아니라 타자의 뜻에 의해 사전에 수정되고 계획된 것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같이 업 이론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윤회설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이며 불교의 윤리 문제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3독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했을 때 수행이란 결국 3독을 제거하는 작업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수행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복제를 윤회의 또다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마도 불교적 개념보다는 과학적 개념에 무게를 둔 얘기로 보인다.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라고도 한다. 줄기세포는 눈, 귀, 코, 골격의 뼈, 심장, 간장 등 모든 생명의 조직적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모든 생명은 세포로 구성돼 있고, 세포가 분열해서 각각의 생명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공학이 발달할 수록 불교의 교리를 새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 김성철 교수(동대 불교학과)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불교의 기본은 윤회설인데 윤회라는 세계관에 입각해 볼 때 체세포를 복제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건드리고 조작하는 것이 기독교와는 달리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자연의 섭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전공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이유도 자연의 섭리에서 허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다만 수정란(배아)을 죽이는 것은 문제이다. 줄기세포는 배아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 수정란(배아)도 이미 중음신이

인간이 살면서 행하는 자제가 모두 윤회다. 모든 것이 윤회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명복제도 윤회의 틀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회가 생명복제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고 말한다면 얘기를 달라진다.

윤회는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윤회는 모든 것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상대적 관계에서 변하며, 어느 하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제는 새로운 관계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다. 따라서 복제 행위가 윤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복제는 불교적인 사고(윤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제를 무리하게 불교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복제는 사대로 이뤄진 육신의 변형일 뿐이다.

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대해 교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생명연장을 위해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생명존중 사상에 벗어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 그보다 얘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어디까지 선을 긋느냐이다. 다만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답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배아복제는 불교적으로 보면 또다른 업의 창출이고 이 업은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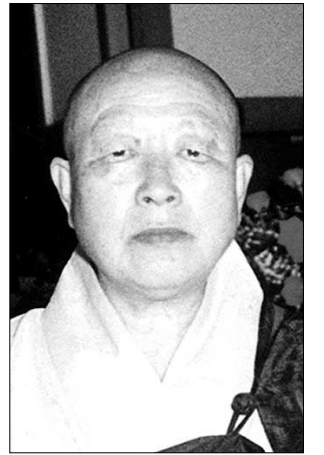
한국의 비구니스님 <6> 성타 스님

60년 가까이 참선에 전념

“소지공양(燒指供養)을 올리면 육체로 인해 생기는 번뇌를 끊을 수 있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반 4명과 함께 연비 했습니다.”

대구 부인사 성타스님(74)은 출가한지 11년째 되던 해 오른손 검지와 중지 두마디에 향유를 바르고 소지(燒指)를 했다.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로 손가락을 사르고 지금까지 부처님 법만을 보고 듣고 살아왔다.

타 들어가는 손가락을 보며 스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스님은 소신공양을 할 때 마음이 어떨었느냐는 물음에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이다. 선종 3대조인 승찬 스님이 스승인 해가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왼팔을 절단했듯이 성타 스님의 미소에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육체에 끄달



려고 고무신에 발을 넣어보면 따뜻한 거야. 그러면 다시 선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 환희심이 절로 났지. 신이 나서 미친 듯이 화두 참구를 한 것 같아.”

도굴 정진을 하던 눈 내린 어느 날 아침, 자연 풍경을 바라보다가 불속 오도송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성타 스님은 큰스님에게 점검 받지 않아 오도송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신다. 오히려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신다. 평생 수행해도 부족한 것이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는 일이라고 덧붙이신다. 그러면서 기억을 더듬어 오도송을 조용히 읊으셨다.

소지공양까지 하며

깨달음 향해 몽맹정진

리지 않고 꼭 이생에서 성불을 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했다.

1948년 16세의 나이로 법주사 수정암에서 출가한 스님은 향곡 스님으로부터, 중국 당나라 임제 스님이 제자 황벽 스님에게 불법이 무어냐며 몽둥이로 가르침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받고 문경 김용사, 대승사 윤필암, 태백산 각화사 등 전국의 선원에서 수행에 매진했다.

성타 스님이 수행하던 시절은 6·25, 불교정화운동 등 불교계 안팎으로 변화가 많던 격동의 시대. 당시는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시절이라 매일 탁발을 해 끼니를 이었으며 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안거동안 자신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깨달음을 향한 마음만은 정말 대단했다고 술회한다. 스님은 태백산 각화사 인근 암자에서의 도굴생활을 들려주었다.

“매일 화두를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허리를 땅에 대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어. 가끔 밖에 나가

지난밤 검은 구름 달빛을 세우더니 안개에 쌓인 나무 가지마다 눈꽃이 세 토굴방 혼자 앉아 의구심 바로 보니 고요한 이내 마음 산천을 감차더라

한때 대부분 소임을 삼지 않고 오로지 화두 참구만 전념한 성타 스님. 청장년 시절 비구니 선방이 부족했던 것이 못내 아쉬워 후배 수좌들에게 적절한 수행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최근 부인사 경내에 비구니 선원을 짓고 있다. 어느덧 세수 70이 넘는 원로가 되었지만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의지는 그 옛날 손가락을 사를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가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 동해사 낙산사 10분 소요
유유암 15분 소요

● 대영주차장 완비
● 바닷가 8분 소요

매년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밤, 낮 없이 범비가 내리고 92년 10월 29일 찬란한 무지개 발현. 11월 8일 오색불꽃이 발현. 새벽기도중인 신도들을 감탄케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법비와 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시고 계신듯 동해사에 오시어 삼사순례도 하시고 소원 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직접 가능함.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모하움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학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래민안과 우주풍조를 기원드리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평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평 방생 장소**로 최적지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감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영주차장 완비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입장료 무료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